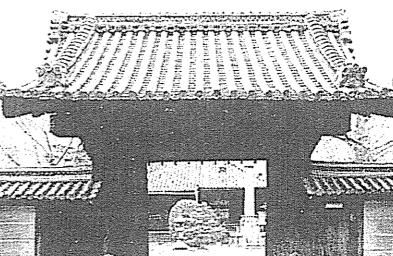


중세의 종교도시, 에도시대에는 일대상업도시로

지나이마치란 신슈(불교의 일파)의 사원을 중심으로 해자나 보루로 방어한 마을을 말합니다. 돈다바야시 지나이마치(돈다바야시시 돈다바야시쵸)는 에이로쿠 (1558-1561) 초년에 탄생했습니다. 교토의 절인 고쇼지의 쇼슈소닌이 찾아와 「황지지」를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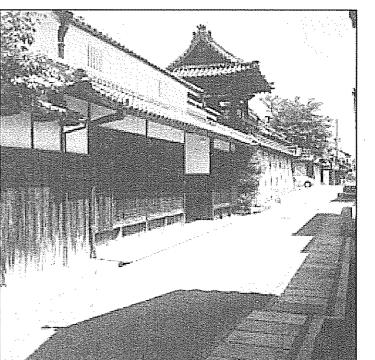


백관문으로 구입하며, 가까운 이웃4개촌으로부터 8명의 유력자하을 모아 고쇼지배쓰인을 건립하였고, 「8인중」의 합의제 밑에 사원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가 행해졌습니다.

에도시대에는 막부의 직할지가 되어 균처를 흐르는 이시카와의 수운, 히가시 고야가이도·치하야가이도가 교차하는 육운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상업마을로 크게 발전했음. 특히 주조업이 왕성했고, 간분 기간 무렵의 기록(1668)에 의하면, 51직종, 149개의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장사뿐만 아니라 지나이마치는 문화의 마을로 발전했습니다. 스기야마가 주택이나 사원에서는 「노」라는 가면극이나 「조루리」란 인형극이 활발하게 흥행하였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조의 한 종류인 「하이카이」가 봄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농가의 정원수에는 포도가 재배되어, 그 포도로부터 된 와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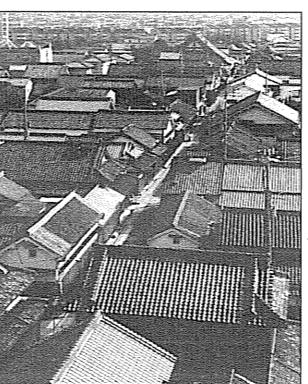
지나이마치의 명산품으로 하는 등, 지나이마치에는 자유롭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기풍이 넘쳤었습니다.



지나이마치 표정에서 보이는 지혜·문화·생활방식

시가지(종교전통과 전통문화 보존지구)

내인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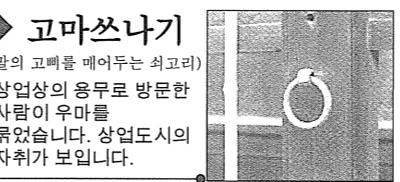
지나이마치가 형성된 시기는 전국시대가 한창인 때였다. 마을에는 전란을 피하는 지혜가 곳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마을은 한층 올라간 토대 위에 있었고, 주위에는 보루를 둘러서 대나무 (유사시에는

대창으로 썼음)를 심었으며, 마을내의 길과 길은 「아테마게」라고 하며 「한겐」(약90cm)정도의 길을 웁겨 앞이 내다보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이마치에 있는 건물 약500동 중, 약180동이 에도, 메이지, 다이쇼, 쇼와 초기의 건축물입니다. 특히 조노몬스지로부터 구 스기야마가 주택 주변은 시가지가 잘 남아 있는 곳이며 헤세9년 10월에 국가의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로 선정받았습니다.

지나이마치에는 중세기부터 이어지는 마을이 지금도 남아 있고 내일도 살아 숨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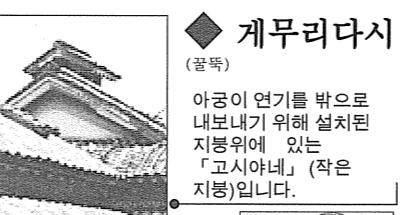
고마쓰나기

(말의 고삐를 매어두는 쇠고리)
상업상의 용무로 방문한 사람이 우마를 묶었습니다. 상업도시의 자취가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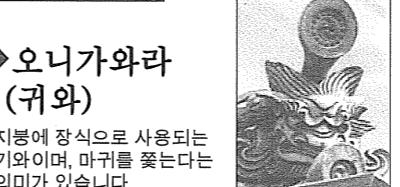
무시코마도

(곤충체집상자처럼 격자의 눈을 가늘게 한 창문)
「쓰시2층」(다락방)의 채광창과 통풍을 위해 설치된 것. 에도시대에는 모고형(오이류의 단면도), 막과형, 에도시대 말기에는 편평형, 메이지 이후에는 직사각형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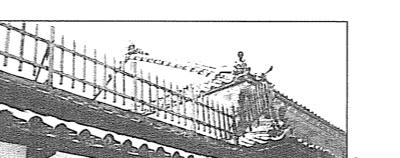
계무리다시

(풀뚝)
아궁이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설치된 지붕위에 있는 「고시야네」(작은 지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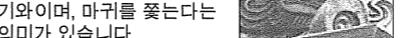
오니가와라 (귀와)

지붕에 장식으로 사용되는 기와이며, 마귀를 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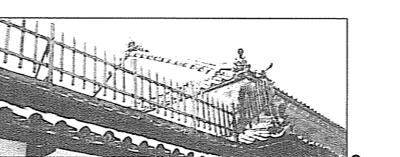
아게미세

수납식 평상. 쓰지 않을 때에는 위로 접어 옮겨서 벽에 수납해 놓습니다.



고시(격자문)

지나이마치에서는 창밖으로 튀어나게 한 격자 타입이 많이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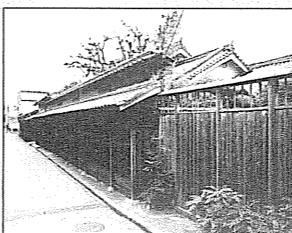
시노비가에시

해자 위에 끌어 뾰족한 대나무나 나무를 세워서 방법으로 했습니다.

나카무라가는 아호를 「사도가」라고 하며, 주조업을 경영했었습니다. 덴메이5년(1785)의 주조량은 가와치 제일의 2135석에 이르렀습니다. 본래는 지나이마치에서도 드문 「오모테야즈쿠리」(중간 뜰이 도로쪽 점포와 안채를 분리시키는 구조)로 덴메이3년(1783)의 건축물이며, 짧은 시절의 요시다 쇼인도 방문했습니다. (비공개)

나카무라가 주택 (오사카부 유형문화재)

주조로 유명했던



4층의 큰 지붕이 특징. 지나이마치 창설기부터 있었던 오래된 가문이며 대대로 양조장을 영업하였고, 미나미카와치 주조업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본래의 토방은 17세기 중기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장 오래됐고 교호19년(1734)쯤에 현재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메이지시대가 끝날 무렵, 사카이의 요사노 아키코들과 활약한 명성과 가인 이소노카미 쓰유코(본명 스기야마 타카)는 메이지15년(1882) 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지내의 곳간에는 쓰유코에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구 스기야마가 주택 (중요문화재)

여류 천재 가인 이소노카미 쓰유코의 생가

지나이마치 산책 그림지도

